

청소년 폭력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을 중심으로

이 경 숙[†]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홍 영 근

부산디지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소년원 학생 중 51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검사를 실시하여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 충동성 간의 관계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폭력경험, 대중매체폭력경험, 충동성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충동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충동성을 매개로 하여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폭력행동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연구결과를 폭력관련비행경험을 가진 청소년에게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비행청소년, 폭력비행, 가정폭력, 매체폭력, 충동성

[†] 교신저자 : 이경숙, 대구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번지
Tel : 053-323-0657, E-mail : cozyee@korea.kr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및 청소년 비행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범죄는 1997년에 150,199명으로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67,478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다시 증가 현상을 나타내어 2008년에는 134,992명으로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09). 법무부(2007)자료의 주요 죄명별 소년범죄의 통계를 살펴보면 폭력관련비행이 39.1%, 절도 38.3%, 강도 25.1%, 장물 10.2%, 강간 9.5%, 방화 8.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소년범죄 중 폭력비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폭력의 실태와 원인, 대책 등이 모색되는 등 청소년폭력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의 특성과 폭력의 발생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비행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폭력 관련 비행행동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매체폭력이 폭력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들 사이에 정서조절과 충동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년원에 입원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정폭력과 매체폭력이 폭력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폭력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의 정의

폭력(violence)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네이버 사전). 차경수(2000)에 의하면, 폭력은 법률이나 사회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이때에는 신체적인 것과 아울러 언어적 폭력과 같은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신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Archer과 Browne(1989)는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로 폭력을 정의하였다. 이는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최선열(1991)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어떤 형태의 강제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다른 한 쪽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폭력이라고 정의하면서 특별히 폭력의 사회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에서는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1998)는 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간의 행동’으로 정의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우발적으로 한번 폭력을 행사하고 마는 경우보다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비사회화된 공격적 품행장애’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 학칙이나 법을 위반하게 될 때 이를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고,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행동’이라고 한다(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07099호)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며 성장한 자녀들은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폭력 등 공격적인 행위는 관찰학습, 즉 모델링과정을 통해 획득된다(Bandura, 1973). 폭력에 대한 모델링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일차적 집단인 가정이다.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간접학습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자녀학대피해경험이나 가정폭력목격 경험 모두 자녀의 폭력비행행동에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업, 2007; 장덕희, 2010).

노충래와 이신옥(2003)은 부와 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폭력의 정도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학교폭력의 가해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하였다. 김남현(2005)은 아동기에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이 심각하고 부부싸움 목격을 많이 할수록 학교폭력 수준의 가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의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ris et al., 2002; Elen & Erica, 2002; Rudo, 1998).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청소년기에 가출이나 무단결석,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Jessica et al., 2007). 청소년이 가정폭력 목격과 자녀학대에 중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그 중 하나만 경험한 경우보다 폭력비행행동의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장덕희, 2004; Herrenkohl et al, 1997). 또한 가정의 역할이 부적절한 경우 청소년 폭력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가정환경 결정론자들은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부모, 문제가정이 있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 폭력행위의 원인이 가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재창, 1986; 심웅철, 1992; 이미란, 2001).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폭력에 대한 행위와 가치를 내면화하여 학습하게 되고 이들의 성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러한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폭력행위를 유발

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중매체폭력경험

대중매체란 대량정보전달 매체의 뜻을 지니며, 어떤 내용을 담은 기호를 기계적인 매체를 통해 무한정한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네이버 사전).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TV를 비롯하여 비디오, 만화, 잡지,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매체들을 통해 폭력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며 이것이 청소년의 사고, 행동,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대중매체에서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장면의 노출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폭력성의 무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생활이란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대중매체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장면이 대리적 욕구충족을 시켜줌으로서 시청자의 공격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유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중매체의 폭력행위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실제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행위에 대한 감정 반응을 둔화시키며 분노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행사하려는 동기를 조장하여 반사회적 공격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윤진, 광금주, 1991).

최근에는 대중매체가 청소년기의 폭력행동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보다 지지를 얻고 있다. 윤진 등(1991)은 폭력적인 장면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행동의 모델로 작용하게 되어 폭력행동을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서은경(2003)은 폭력물-음란물 시청 후의 모방범죄의 충동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약 73%가 TV영상매체의 폭력물 및 음란물 시청 후에 모방범죄의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유희과 호기심이 많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쉽게 행동으로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와 충동적인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매체는 폭력행동 등 일탈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상미(2010)는 청소년들의 영상매체 노출 중 폭력적인 프로그램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폭력적인 영상매체에 많이 노출될수록 모방성향이 높아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esmann 등(2003)은 어린 시절에 폭력적인 매체에 접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15년간의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폭력적인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에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onemberger 등(2005)도 폭력적인 매체에의 노출이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통제력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도 쉽게 폭력적인 영상매체를 접할 수 있고 이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폭력적인 영상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동성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충동성을 ‘자신이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대한 제지 곤란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행동 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충동성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부적응이나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경,

2005). 허규(1999)에 의하면,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비행을 많이 하고, 충동성은 전체 비행뿐만 아니라 하위요인들(공격행동, 규칙위반, 파손행위, 절도, 성비행, 약물남용) 모두에서 비행의 증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동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비행의 유형에 관계없이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동적인 사람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고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고 책임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은 충동성 및 공격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심웅철, 1999). 충동적인 청소년은 병리적인 반사회적 성격특성이 두드러지고 사회적으로 무감각하고 위협을 무시하며, 냉담하고 폭력적인 동시에 충동조절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원호택, 박현순, 이훈진, 1992) 쉽게 폭력에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매체폭력, 충동성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어떻게 청소년의 폭력비행을 유발하는지, 또 이들 요인 중 폭력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요인이 더 큰지 불명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비행에 관여하는 여러 위험요인들 중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영향력이 클 것으로 가정되는 가정폭력과 매체폭력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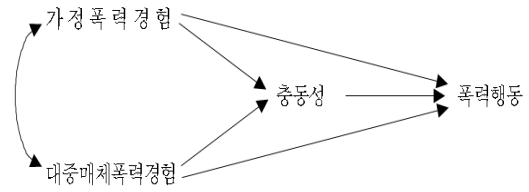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으로써 폭력비행의 이면에 작용하는 과정과 변인들 간의 관계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매체폭력이 폭력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충동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경로와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관계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¹⁾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8호, 9호, 10호 처분 학생과 위탁생 중 폭력관련비행(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해)경험이 있는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전체 질문지에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예를 들면, '1+1은 3이다' 등의 문항임)을 포함시켰다. 질문지에 응답한 총 677명 중 5개의 타당도 문항에서 1개 이상 틀린 159명을

1) 본 연구에 사용된 data는 최광식, 이경숙, 이명호, 홍영근(2008)에서 사용된 data의 일부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한 것임.

제외하였고, 나머지 51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self-report) 방법을 이용하는 설문지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아래와 같다.

가정폭력경험 척도

가정에서의 폭력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부부 싸움의 목격과 청소년들이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부모의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들 척도는 오영렬(200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연진영(1992)이 Straus(1979)의 CTS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들 중 가정에서 종종 행해질 수 있는 학대 유형 문항 11개를 선택하였다. 이 중 5문항은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되고 6문항은 언어적인 폭력에 해당된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고 (1:전혀 없었다, 2:거의 없었다, 3:가끔 있었다, 4:종종 있었다, 5:자주 있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을 많이 경험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6$ 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폭력경험 척도

대중매체 폭력경험 척도는 김남현(200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9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없다'의 1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5점까지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매체에 많이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중매

체폭력경험척도는 범죄와 관련된 문항과 일반적인 폭력에 관련된 문항으로 나뉘어졌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0$ 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척도

충동성 척도는 Barratt(1959)의 충동성 척도-II(Barratt Impulsiveness Scale-II:BIS-II)를 이현수(1992)가 변안한 것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 이 검사는 무계획충동성(Non-planning impulsiveness:NP) 9문항, 운동충동성(Motor impulsiveness:M) 8문항, 인지충동성(Cognitive impulsiveness:C) 6문항 등 3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운동충동성 척도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거나 한 군데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고, 앞 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며, 인지충동성 척도는 한 가지 일에 쉽게 몰두하기가 힘들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일을 싫어하는 등의 경향성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무계획충동성 척도는 일을 시작하기 전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한 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등의 특징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3$ 이었다.

폭력행동 척도

폭력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김준호(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괴롭힘, 갈취, 폭언, 폭행, 협박으로 나누어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 자신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질문지이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종종 있었다, 5: 자주 있었다). 척도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단요인이 추출되어 구조모형분석을 위해 무작위로 3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2$ 이었다.

연구설계 및 자료분석

청소년 폭력행동의 위험변인으로 설정한 가정폭력경험, 대중매체폭력경험, 충동성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을 연구모델로, 그리고 그림 2를 통계적 검증모델로 설정하였다. 그림 2의 통계적 검증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정폭력경험의 경우 하위척도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관찰점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대중매체폭력경험의 경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졌고 이

들 척도를 지표변수로 정하였다. 충동성은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지수 χ^2 값, RMSEA, CFI, NNFI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AMOS 17.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자가 386명으로 74.5%를 차지하며 여자는 132명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전체 12~21세로, 16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142명으로 가장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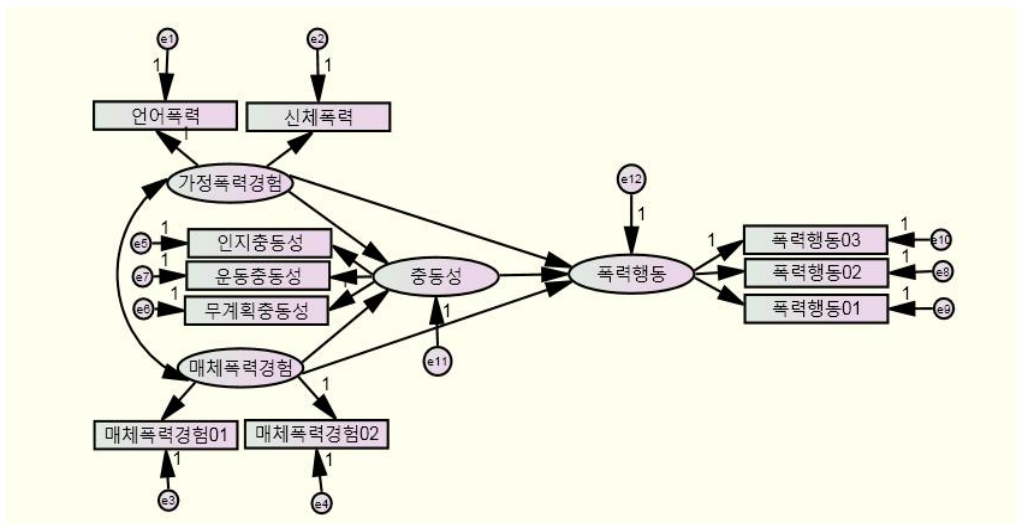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적 모델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응답범주	명	%
성 별	남	386	74.5
	여	132	25.5
	전 체	518	100.0
나 이	12	1	.2
	13	5	1.0
	14	37	7.1
	15	87	16.8
	16	142	27.4
	17	120	23.2
	18	79	15.3
	19	35	6.8
	20	10	1.9
	21	2	.4
	전 체	518	100.0
학 력	초재	2	.4
	초졸	23	4.4
	중재	76	14.7
	중퇴	89	17.2
	중졸	122	23.6
	고재	42	8.1
	고퇴	125	24.1
	고졸	37	7.1
	대재이상	2	.4
전 체	518	100.0	
직 업 (소년원입원전)	학 생	156	30.1
	아르바이트	153	29.5
	취 업	22	4.2
	무 직	187	36.1
전 체	518	100.0	

으며 전체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16.49세(SD=1.48)이다.

측정변인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7.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하의 10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의 부합도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05;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 연구모델의 χ^2 값, 2)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3) Bentler CFI, Tucker와 Lewis(1973)의 NNFI, 그리고 4)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Kline, 2005; 문수백, 2009).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4~.07)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

표 2. 측정변인간의 상호 상관행렬 및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매체 폭력1	매체 폭력2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폭력 행동1	폭력 행동2	폭력 행동3
신체 폭력	1.00									
언어 폭력	.70	1.00								
매체폭력 1	.26	.34	1.00							
매체폭력 2	.32	.35	.56	1.00						
인지충동성	.12	.18	.12	.15	1.00					
운동충동성	.22	.32	.28	.27	.55	1.00				
무계획충동성	.15	.29	.22	.20	.56	.56	1.00			
폭력행동 1	.29	.31	.37	.52	.22	.33	.25	1.00		
폭력행동 2	.36	.42	.41	.57	.20	.35	.26	.79	1.00	
폭력행동 3	.33	.38	.35	.47	.26	.38	.26	.68	.78	1.00
평균	10.77	12.06	10.76	16.78	15.52	16.57	21.48	10.76	11.23	6.95
표준편차	4.93	6.04	5.41	4.82	2.60	4.20	3.33	4.00	4.06	3.06
왜도	.99	1.11	1.48	-.18	-.16	.57	-.19	.40	.42	.81
첨도	.64	.55	1.83	-.56	.50	.43	.29	-.20	-.35	.15
N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매체폭력과 폭력행동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 2가지, 3가지 하위요인을 설정하였음.

표 3.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p	NC	TLI	SRMR	CFI	RMSEA(.05)	
									LO90	HI90
측정모델	26	29	70.97	.000	2.45	.97	.04	.98	.04	.07

표 4. 연구모델의 부합도

모델	NPAR	DF	CMIN	p	NC	TLI	SRMR	CFI	RMSEA(.05)	
									LO90	HI90
측정모델	26	29	70.97	.000	2.45	.97	.04	.98	.04	.07

수가 부합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 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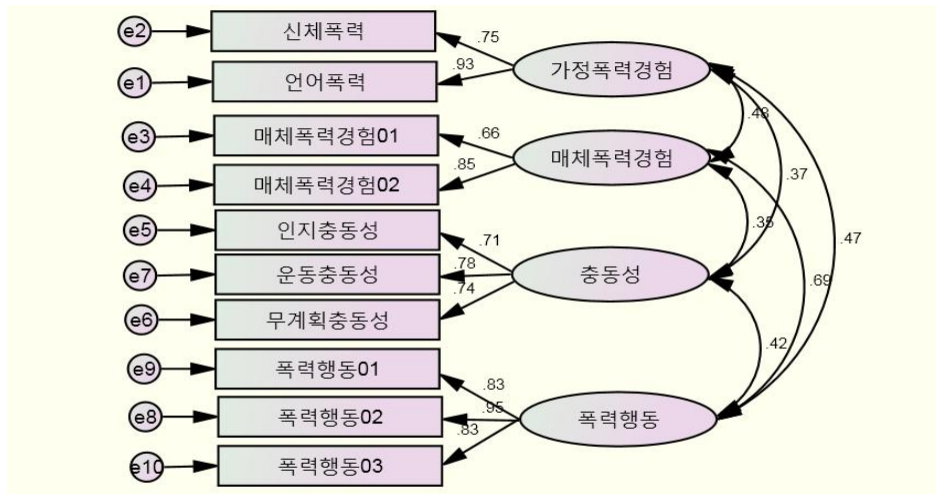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모수치 추정결과

계수인 요인부하량이 가정폭력경험과 충동성 (.37), 매체폭력경험과 충동성(.35)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4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어떤 이론변수도 모델하의 다른 이론변수들과 .66~.95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 변수들이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 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의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04~.07), SRMR=.04, CFI=.97, TLI=.95 등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는 연구모델 모수치 추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경험 → 폭력행동, 대중매체폭력경험 → 폭력행동, 충동성 → 폭력행동, 가정폭력경험 → 충동성, 대중매체폭력경험 → 충동성의 경로

표 5.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직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추정오차	C.R.	P	표준화 추정치
구 조 모 델					
충동성 ← 가정폭력경험	.12	.03	4.17	***	.26
충동성 ← 대중매체폭력경험	.14	.04	3.48	***	.23
폭력행동 ← 가정폭력경험	.06	.02	2.83	**	.14
폭력행동 ← 대중매체폭력경험	.35	.04	8.60	***	.57
폭력행동 ← 충동성	.17	.05	3.48	***	.16
측 정 모 델					
언어폭력 ← 가정폭력경험	1.00				.93
신체폭력 ← 가정폭력경험	.66	.05	12.27	***	.75
매체폭력1 ← 대중매체폭력경험	1.00				.85
매체폭력2 ← 대중매체폭력경험	.87	.07	12.17	***	.66
무계획충동성 ← 충동성	1.00				.75
운동충동성 ← 충동성	1.32	.09	14.15	***	.78
인지충동성 ← 충동성	.75	.06	13.70	***	.71
폭력행동1 ← 폭력행동	1.00				.83
폭력행동2 ← 폭력행동	1.52	.58	26.12	***	.95
폭력행동3 ← 폭력행동	1.32	.58	22.59	***	.83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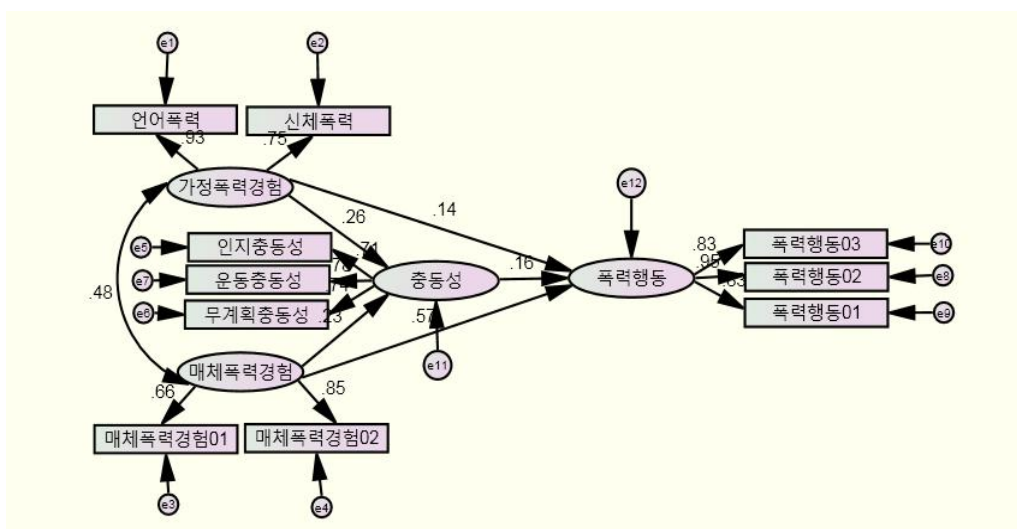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델 모수치 추정결과

표 6. 폭력비행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효 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정 폭력 경험 → 폭력행동	.08	.06**	.02
대중매체폭력경험 → 폭력행동	.37	.35***	.02
충 동 성 → 폭력행동	.17	.17***	.00
가정 폭력 경험 → 충 동 성	.12	.12***	.00
대중매체폭력경험 → 충 동 성	.14	.14***	.00

** $p < .01$, *** $p < .001$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경험, 대중매체폭력경험 그리고 충동성이 모두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중 대중매체폭력경험이 청소년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은 청소년의 폭력행동 뿐만 아니라 충동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폭력비행의 위험변인으로 설정한 가정폭력경험, 대중매체폭력경험, 충동성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간의 관계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가정폭력경험은 신체폭력, 언어폭력의 관찰점수를 지표변수로, 매체폭력은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낸 두 가지 하위요인을 지표변수로, 충동성은 무계획충동성,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Kline, 2005;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으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4~.07)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폭력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이들 요인이 충동성을 매개로 하여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들 세 가지 변인들이 청소년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중매체폭력경험이 총효과 .37로 매우 높았다. 이 중 직접효과는 .35, 간접효과는 .02이었다. 충동성이 폭력행동을 설명하는 총효과는 .17이었고 가정폭력경험이 폭력행동을 설명하는 총효과는 .08이었다. 위의 세 요인 중에서 대중매체폭력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요인 모두 청소년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중 대중매체폭력경험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내용의 TV 또는 인터넷 영상매체 이용이 폭력

모방이나 수용과 깊은 관련성을 보여준다(유상미, 2010)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폭력물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의 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Gerbner & Gross & Morgan & Signorielli, 1980)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결과는 가정폭력경험, 대중매체폭력경험, 충동성 간의 관계였다.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모두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이 모두 충동성을 매개로 하여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충동성을 일으켜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신선인(2008)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 가정이란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다.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은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폭력경험을 당하거나 부부싸움 등 폭력경험을 목격하고 자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들이 청소년기에 학교나 또래 집단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특히 부모가 언어적 또는 행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본 자녀일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사소한 행동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분노감을 표출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충동적인 사람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책임성이 적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 아동기의 충동성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부적응 혹은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다(김경, 2005; Patton, Stanford & Barratt, 1995).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라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성향이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폭력행동에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성 또한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폭력경험이 폭력행동을 이끄는 데에 매개변인으로 유의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 중 폭력과 관련된 비행행동을 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 및 또래관계 속에서 적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기에 가정폭력 장면이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정적 경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알맞게 해소할 수 있고 부모를 향한 억압된 적대감이나 분노감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가정이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폭력장면에 자주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이전의 폭력장면 노출경험으로 이루어진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를 접할 때의 자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관련 비행행동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경험과 대중매체 폭력경험이 폭력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이들 사이에 충동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았다. 대부분의 이전 연구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여 보면, 실제 폭력비행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가 보다 더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부모-자녀 관계, 대중매체, 충동성의 개념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 중 폭력과 관련된 비행을 하여 현재 소년원에 입원되어 있는 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추후에는 일반 청소년들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폭력행동에 대해 측정할 때 질문지만을 이용하였는데, 폭력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였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추후에는 폭력비행 뿐만이 아니라 절도, 약물남용 등 각각의 비행행동에도 이러한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연구를 통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이들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고 재비행을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 경 (2005). 청소년비행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현 (2005) 가정폭력과 대중매체 폭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1997).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재엽 (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 복지연구, 6(7), 1-32.
- 노충래, 이신옥 (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 제6호, 1-35.
- 대검찰청 (2009). 검찰연감. 대검찰청
- 법무부 보호국 (2007). 소년보호통계, 제16편, 법무부.
- 서은경 (2003). 우리나라 영상매체와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응철 (1992). 성장환경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소, 29.
-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연진영 (1992).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변인. 가정문화연구
- 오영렬 (2003).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박현순, 이훈진 (1992). 범죄 청소년의

- 성격특성에 따른 군집분석. *심리과학*, 1(1), 37-51.
- 유상미 (2010)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사회학습 이론과 둔감화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3.
- 윤진, 광금주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2), 53-83.
- 이미란 (2001). 가정, 친구, 대중매체요인이 청소년폭력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1986). 청소년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이현수 (1992). *충동성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장덕희 (2004). 가정폭력 경험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65-91.
- 장덕희 (2010). 보호요인이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21-43.
- 차경수 (2000). *한국의 청소년 정책*. 양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학교폭력,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최광식, 이경숙, 이명호, 홍영근 (2009). 가정폭력과 매체폭력이 비행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충동성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논집*, 9.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허규 (1999). *충동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rcher, J., Browne, K. (1989).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London;Routledge.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ratt, E. S. (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 191-198.
- Comstock, G. (1986). Television and film violence. In S. Apter, & A. Goldstein (Eds.), *Youth violence; Programs and prospects*. New York; Pergamon.
- Cris, M. S., Debra, I. B., & Nicole, E. A. (2002). Finding from community-based program for batteres women their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915-936.
- Ellen, R. D., & Erica, L, S. (2002).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urban preschool cgilhren: Battered mothers' perspectiv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1075-1101.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Herrenkohl, T. I., Sausa, C., Tajima, E. A., Herrenkohl, R. C. & Moylan. C. A. (2008). Intersection og Child Abuse a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9(2), 84-99.

- Huesmann L, R., Moise-Titus J., Podolski C. L., & Eron L. D. (2003).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TV violence and thei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in young adulthood: 1977-1992.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01-221.
- Jessica, L. H., Siobhan, O., Jana, L. P., & Thomas W. S. (2007).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violent juvenile offending: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4), 367-384.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768-774.
- Rudo, Z. H., Powell, D.S., & Dunlap, G. (1998). The effects of violence in the home on children's emotional, behavioral, and social uncto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6(2), 94-113.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Kronenberger, W. G., Mathews, V. P., Dunn, D, W., Wang, Y., Wang, Y., Wood, E. A., Giauque, j. j., Rembusch, M. E., Lowe, M. J., & Tie-Qiang, L. (2005). Media Violence Exposure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Aggressive and Control Adolescents. *Journal of Chbical Psychology*, 61(6), 725-737.
- 네이버 사전(<http://www.naver.com>)
- 1 차원고접수 : 2011. 2. 26.
심사통과접수 : 2011. 3. 10.
최종원고접수 : 2011. 3. 21.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Violent Behavior

Lee, Keung-Suk

Criminologic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Hong, Young-Keun

Busan Digit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violent behavior. 518 adolescents in Youth Detention Center of the whole country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s of mass media violence, Impulsiveness and violent behavior.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sed using Amos 18.0 and a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TLI, SRMR,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experiences family violence, experiences of mass media violence, Impulsiveness on violent behavior on adolescent's violent behavior was significant. Second, the direct effect of experiences family violence, experiences of mass media violence on impulsiveness was significant. Finally, th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nd mass media violence was mediated by impulsivenes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ts, violence delinquents, domestic violence, mass media violence, impulsive